

都市環境과 色彩

朴暎緒

亞州大學校建築學科 教授

Report/Urban Surrounding and Color Planning for Building
by Park, Don-Soh

環境色彩問題는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미약하여 設計者 또는 官에서 設計나 行政의 準據로 삼을 만한 자료가 태무한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건축과 도시색채의 일반적 計劃原理와 色彩計劃과 設計의 과정을 약술함으로써 문제제기를 겸하여 건축설계 또는 도시설계자들의 참고자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研究와 資料蓄積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기법이 정립되는 것이 건축계의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머리에

근래 環境色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인들에게 좋은 印象을 심어 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관계당국과 언론의 先導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기회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들의 環境의 質을 보다 세련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다음 세대에 훌륭한 환경 유산을 물려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熱·빛·소리·濕度·空氣·물 등 環境因子들은 物理的 測定이 가능하고,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상태를 計量化할 수 있으며, 이상적 상태가 되도록 물리적 설계와 制御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환경구성요소인 形態·色彩·텍스처 등 디자인적 因子들은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 個人差가 심하므로 일률적 적정치에 의한 계량적 조절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定量的인 기준과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한편 定性的인 접근을 시도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環境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環境色彩問題는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미약하여 設計者 또는 官에서 設計나 行政의 準據로 삼을 만한 자료가 태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건축과 도시색채의 일반적 計劃原理와 色彩計劃과 設計의 과정을 약술함으로써 문제제기를 겸하여 건축설계 또는 도시설계자들의 참고자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研究와 資料蓄積이 꾸준히 이루어 짐으로써 합리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기법이 정립되는 것이 건축계의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1. 건축색채의 계획과 설계

가. 건축색채의 기본원리

(1) 건축색채는 둘러싸는 것
건축색채는 인간생활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둘러싸는 것”이다. 즉 보여주기 위한 색이라기 보다 둘러싸는 색이기 때문에 의식해서 주의를 끄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無意識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색채는 인간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색채는 그 존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바람직하다. 이것은 내장색채에서 더욱 그렇거니와 외장색채도 중화, 포스터, 산업디자인 등의 경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색”의 성격이 약하다.

(2) 건축색채는 배경이 되는 것
건축색채는 前景 (figure) 과 背景 (ground) 의 관계에서 배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축색채는 사람이나 물체를 돋보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물체와 함께 있을 때 조화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너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3) 건축색채는 대다수인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건축색채는 부특정 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색채를 다수결로 정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디자이너가 개성을 억제하고 신중히 색을 선정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配色으로 하는 것이 건축색채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4) 건축색채는 차분함이 기본 기능에 따라 자극적인 배색, 화려한 배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건축색채의 기본은 차분함이고, 다음으로는 포근함, 따뜻함 등의 느낌일 것이다. 따라서 중·저명도, 저채도, 난색계가 기본이 된다. 저명도는 조명효율을 저하시키므로 함부로 쓸 수 없으나 현재보다는 다소 명도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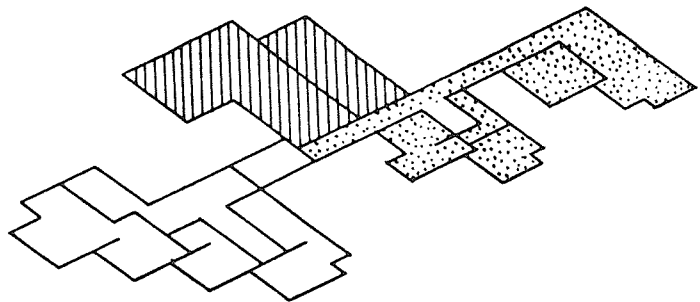
(5) 건축물의 이미지에 맞는 배색 명원은 의료에 걸맞는 청결감과 의학적인 면의 신뢰감을, 국민학교 저학년 교실은 즐거운 학교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각각의 이미지에 합치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색채설계에서 어떤 이미지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배색을 하는 것이 근래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6) 색채의 하이얼라키(Hierarchy) 건축은 그 중요도의 순위가 형태→재료→색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결정도 역시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구상단계에서 색채를 맨 먼저 머리에 떠올리든가, 재료를 먼저 생각하고 형태를 구성하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위의 선택이 상위로 휘드백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 순위는 역시 형태→재료→색채가 옳을 것이다.

나. 조오닝(Zoning) 과 그루핑(Grouping)

조오닝은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쓰이는 기본적 기법의 하나로, 건축계획에서는 단일건축물이나 일단의 건축물을 기능별 또는 구역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나누어진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통합됨은 물론이다. 색채계획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전체적 통일에서 오는 획일성을 방지하고, 개별적 계획에서 오는 산만함을 없애 줌으로써 통일과 변화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며 기능별, 구역별 식별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학교건축에서의 색채 블록프랜의 예이다. 블록별로 주조색을 구별하여 변화도 주고 식별성을 높이며 또한 高·中·低學年別 이미지에도 합치시키는 것이다. 그림 2는



저학년 영역 관리 부분 고학년 영역

그림 1. 학교건축 색채계획의 블록프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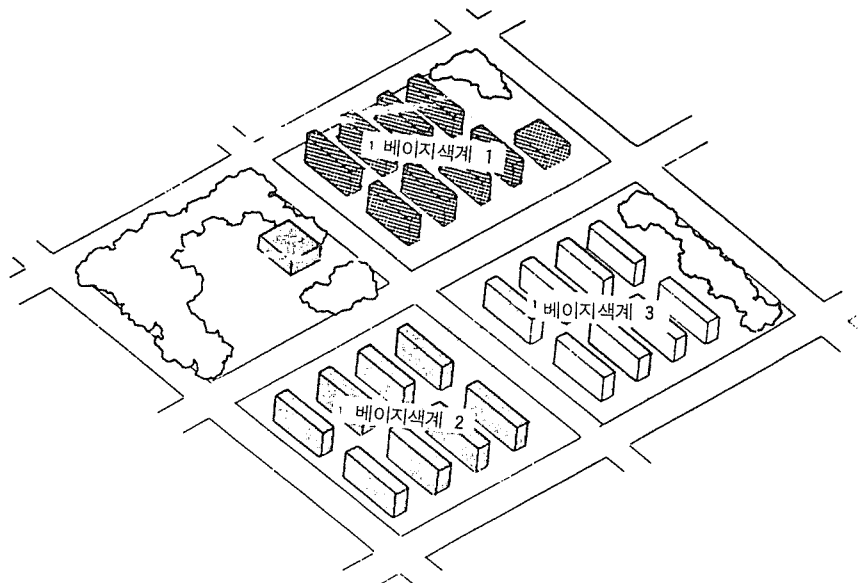


그림 2. 아파트단지 색채계획의 조닝 예

아파트단지의 조닝 예이다. 이 예는 基調色(主調色의 개념과 구별됨)을 베이지색으로 정하고 각존을 같은 기조색의 단계적 色調變化(Gradation)로 구분 함으로써 시각적 변화와 식별성 제고를 의도한 것이다.

다. 외장배색

건축물의 외장배색은 실내배색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는, 건축색채는 보이기 위한 것 보다는 인간의 생활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둘러싼다고 하였는데, 외장색채는 실내의 색채에 비해

둘러싼다는 성격이 약화되고 그 대신 보이기 위한 성격이 더 浮刻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집합은 역시 둘러싸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이기 위한 배색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경·배경의 관계에서 건축물은 배경이 된다고 하였는데 멀리 있는 건축물은 전경이 될 수도 있다. 원경에서는 건물이 시야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건축물은 사람과 물체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어야 하므로 “前景”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는 배색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둘째는, 건축외부의 색채는 자연환경의 색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초목의 녹색을 배경으로 했을 때 명백성의 원리에 가장 맞는 흰 외장색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또한 초목의 녹색은 붉은 벽돌색이나 밝은 석조건물의 외장색과도 잘 어울린다. 녹색 배경에 BG 또는 B계의 지붕을 흔히 보는데 이는 잘 조화되지 않는 배색이며, 기와 素材色 그대로의 회색이나 低明度 高彩度の B계가 적합하다. B계의 지붕색을 쓴다면 채도를 아주 낮춰야 할 것이다.

셋째는, 건물외부의 색채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주변의 인공환경과의 관계도 신중히 검토하여 배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존가격의 기초색에 맞추는 것이 무난하다. 유럽에서는 거의 주변건물과 동일재료, 동일색채로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경향이다. 반드시 동일색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질서한 색채의 집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세가지 이외에는 거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고려에 넣으면 될 것이며, 중요하고 형태가 아름다운 부분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모양이 보기 싫은 부위는 억제하는 등의 수법은 내외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창호틀을 흰색으로 하여 눈에 띄게 하고, 선풍통은 벽면과 같은 명도로 하여 눈을 끌지 않도록 하는 배색을 들 수 있다.

건축 외장배색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근래 유행하는 수퍼그래피즘(Supergraphism)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의 부위, 형태, 재료에 관계없이 그래픽 디자인과 같이 벽면을 자유로이 채색하는 것이다. 건물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는 공간의 분위기를 돌구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재능에 달렸으므로 과학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축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건축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라. 색채설계

(1) 설계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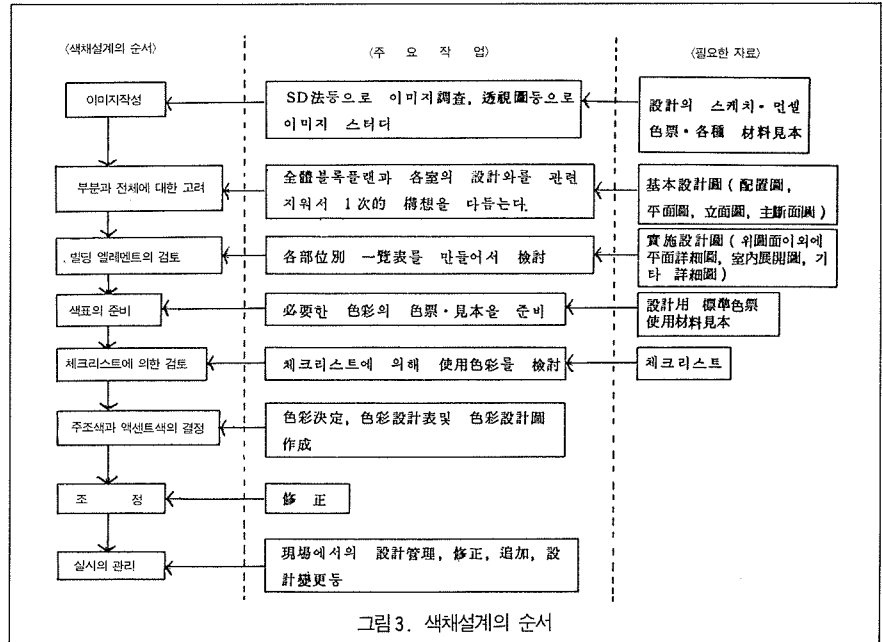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은 단계를 밟으면 효과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간략한

순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미지작성 : 이 단계에서는 스캔틱·디퍼렌셜법이나 혹은 더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그 기능을 갖는 실내 또는 외부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작성하고 설계는 그 이미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② 부분과 전체에 대한 고려 : 규모가 큰 경우는 전체적인 통일과 변화의 균형이 중요하다. 조오닝과 그루핑은 유용한 방법이다.

③ 빌딩·엘레멘트의 검토 : 색채결정 이전에 각 부위의 중요도, 형태, 면적 등을 검토해서 어느 부위의



(표 1) 색채설계 체크리스트

대 항목	세 부 사 항
색채의 블록플랜은 적절한가	조오닝 (zoning) 그루핑 (grouping)
각부위의 색채는 적절하게 선택되었는가	각부위의 표준적 색채 강조와 억제, 부위의 중요도, 부위의 형태, 부위의 면적, 부위의 명암, 어디서 봤을 것인가
색채이외의 속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광택, 투명도, 텍스처, 바탕의 모양, 패턴, 재질감
실내배색의 조화는 어떠한가	질서, 친근성, 공통성, 명백성, 주조색과 액센트색, 균형점
색채효과가 바르게 이용되었는가	면적효과, 상호반사, 색순응, 색대비, 동화효과, 유목성, 시인성, 가속성 온도, 거리, 대소·중량 등의 감각 · 기억·기호·연상·상징·감정효과
K S 는 지켜졌는가	안전색채 사용통칙 형광안전색채 사용통칙 안전색광 사용통칙 안전표식 배판식별
조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공광원의 종류 빛의 색, 연색성, 조명효율, 눈부심
보수는 용이한가	변색, 퇴색, 더러움을 타기 쉬운가
건축색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생활을 둘러싸는 색채 사람과 물체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 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색 차분한 배색 그 건물다운 느낌을 주는 색 색채는 형태나 재료에 종속
외장배색은 바르게 되었는가	외부와 내부의 구별 자연환경과의 조화 주변 인공환경과의 관계

색채를 고채도로 할 것인가 저채도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위를 고채도로 할 것인가 저채도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실전체의 색상을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를 검토한다.

④ 색표와 재료견본의 준비: 표준색표와 재료 견본을 수집 준비한다.

⑤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표 1 과 같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사용할 색채의 적부를 검토한다. 매항목을 모두 체크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⑥ 주조색과 액센트 색의 결정: 배색은 주조색과 액센트 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후자는 없을 수도 있다. 주조색은 넓은 면에 침착한 색으로, 여러 부위에 공통성있게 사용되고, 액센트색은 통상 좁은 면에 刺戟이 강한 색으로 배색한다. 여기에 보조색이 추가될 수도 있다.

⑦ 조정: 일단 색채설계가 끝난 뒤, 비슷한 색을 정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矛盾이 없게끔 수정한다든지 하는 마지막 조정을 가한다.

⑧ 실시의 관리: 색채의 변경, 누락된 부위의 색지정, 설계변경에 따른 색채변경등 색채설계는 건물 준공시까지 계속된다.

(2) 체크리스트

표 1의 체크리스트는 건축색채에서 다루어져야 할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색채설계를 검토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거꾸로 이 사항들을 누락없이 반영하면 좋은 색채설계가 될 것이다.

2. 도시경관과 색채

가. 시각환경에서의 색채의 의미
이텔슨(W. H. Ittelson)이 주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여섯가지요건 가운데 세가지가 시각에 관계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세가지는 첫째 스트레스를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오염·소음·교통난 등의 過負荷的 環境에서 오는데 거기에 시각적 불쾌감도 가세되어 사람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 시각적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둘째는 도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미지 형성에는 교통의 수단과 경로, 경계선, 절점, 랜드마크, 특징있는 지구등이 포함되는데, 랜드마크와 특징있는 지구(고공이 있는 지구, 골동품 거리, 환락가 등)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시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세제는 환경의 중요함인데 다양성, 아름다움, 생동감, 상징적 의미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시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각적 요소들이 도시전체나 가로의 쾌적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각을 통해서 快·不快 또는 美·醜를 느끼게 하는 3요소는 形態·色彩·텍스처이고, 텍스처는 그 재료의 표면 구조 패턴인데, 시각에 감지되는 자극으로서 가장 약하고 미묘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경관은 단일건물의 외관이나 건물의 인테리어와는 달리, 주로 遠景에서 파악되므로 텍스처는 더욱 그 영향이 약해지며 도시 환경의 시각적 효과는 주로 형태와 색채 그 두가지에 거의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두가지 인자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떤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물체를 보았을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주었을 때) 자극의 강도는 최초에 색채80%, 형태20% 였다가 20초 후에 색채의 비율은 급격히 감퇴되고 2분 후에 색채60%, 5분 후에 색채와 형태가 같은 비율이 되어 그 때부터 그대로 지속된다고 한다. 이 실험대로라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본 5분 이내에는 색채 자극이 더 강하고 그 뒤는 같은 비율로 지속되므로, 합쳐서 판단할 때 결국

색채의 자극이 형태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도시경관은 승차하거나 보행으로 이동하면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때, 짧은 시간내의 자극이 더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색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상 요구에 따라 구조, 재료,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태가 색채에 선행되는 것이고, 형태가 색채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겠다. 즉 표현을 바꾸면 색채는 형태에 종속되는 것이며, 색채가 형태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체와 의복의 관계에서, 체격의 결함을 옷으로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 결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보이게 할 수는 있듯이, 색채는 형태를 더욱 아름답게 하거나 혹은 추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나쁜 형태를 어느 정도 덜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형태의 지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결국 시각환경의 질은 모든 환경 구성요소의 형태 디자인에 크게 달린 것이며, 微視的으로 구성요소 하나하나와 巨視的으로 전체적인 시각요소의 형태구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색채는 그 환경 경관의 시각 효과를 증진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 하는 2차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환경색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 정부에서도 색채환경 관리지침을 작성, 이를 추진하는 등 관민이 모두 색채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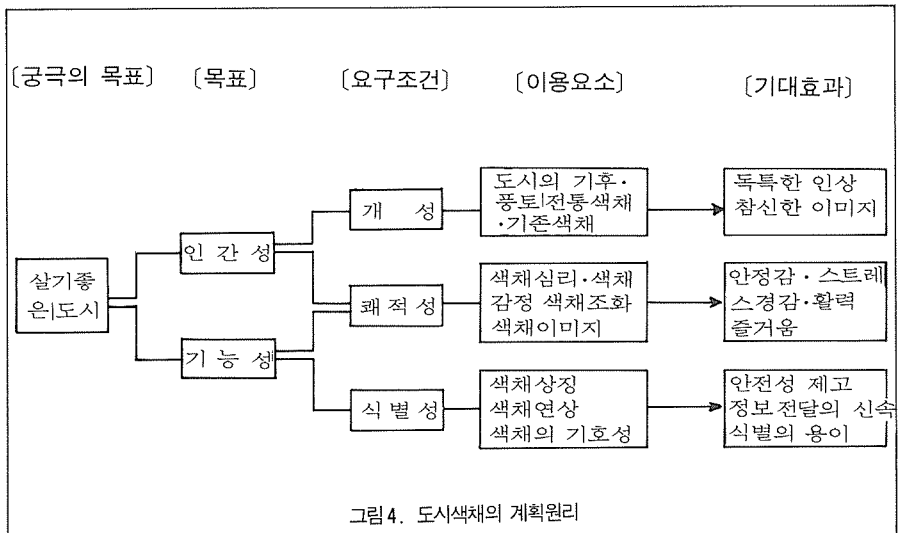


그림 4. 도시색채의 계획원리

이는 아마도 형태를 결정하는 변수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그 통제나 관리가 쉽게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형태보다는 색채의 자극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다는 점, 형태의 개선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색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내지는 환경색채가 混亂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單調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에서 건축물의 크기, 외관등의 그 기능, 위치, 경제적 요인, 공화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설사 造形上評價가 나쁘게 내려져도 그것을 개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 색채에 대해서는 누구나 나름대로 평가 하기가 쉽고 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고칠 수가 있다. (형태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덜 든다는 뜻이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즉 『環境色彩』는 시각환경을 구성하는 『形態』에 비해, 행정적 또는 제도적 장치, 계몽, 교육 등을 통해 어느정도 통제, 관리,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나. 도시환경 색채의 계획원리

(1) 환경색채의 목표와 요구조건
환경문제의 궁극적 과제는 현재와 미래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점에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환경 가운데도 특히 도시경관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도시는 복잡한 구조의 有機體이고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다. 인간의 온갖 욕구와 꿈이 集積되어 있는 곳이 도시이다. 이와같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고, 사람들의 많은 욕구와 꿈을 실현하게 하려면 도시기능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도시는 거대한 기계로 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가능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공간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실제문제에서 상충될 수도 있으나 지혜롭게 이를

조화시켜가면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의 요구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個性 ② 快適性 ③ 識別性이다. 그 도시의 기후·풍토·기존시설·관습·전통색채 등과 관련지워진 그 도시의 독특한 개성이 도시경관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밴쿠버시는 가로등·신호등·벤치·피크닉첸어 등의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이 짙은 초록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독특하고 붉은 벽돌건물과 잘 어울리며 (색채이론상의 補色調和에 해당) 가을 겨울 등 녹색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해 주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흰 雪景과의 對比調和로 개성적인 경관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또한 쾌적성은, 소음·진동·먼지·일조방해·공기오염 등으로 부터 도시민을 보호하듯이 우리 시각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어지러운 색채를 추방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을 소외하는 획일적이고 삭막한 색채환경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配色이 基調를 이루더라도 변화가나 위약시설등에는 다채롭게 색채효과를 활용하여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계획되어야 할것이다. 식별성에 대해서는, 각종 표지와 시설물의 기능에 맞는 배색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전달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색채의 상징성, 연상작용, 이미 알려져 있는 色彩標識등을 토대로 한 색채의 記號性을 활용해야 한다. 그림 4는 도시환경색채의 목표, 요구조건, 이용요소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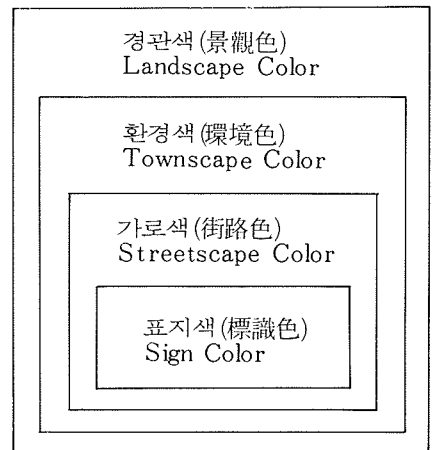
(2) 주변환경색과의 관계
도시 구성요소의 색채는, 개개가 個性, 快適性, 識別性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색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매스가 작고 면적이 좁은 부분에는 자극이 강한 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위의 기존색채와의 색차(색상·명도·彩度별의 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차가 크면 대비효과로 자극이 강해지고 인간에게 과도한 視覺負荷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스가 작은 것은 誘目性과 視認性이 좋게 강한 對比로 배색(우체통·소화전·금지표시 등)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아도 강조할 필요가 없는 휴지통과 같은 것은 역시 채도를 낮추고 주변색과 차가 적은 배색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특색있고 기념적인 조형이라면 환경색과 대비되는 배색으로 그 형태를 강조하고, 평범하고 형태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환경색과의 색차를 억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경관색의 체계적 구분

도시경관 색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거기에 대응하는 색채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나는 視距離에 의한 구분이다. 인간이 주로 그 대상을 보게되는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색의 양태를 遠景色(landscape color), 中景色(townscape color), 近景色(streetscape color), 近接色(sign color)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레벨에 따라 색채 계획에 그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가 멀어질 수록 채도가 낮아 보인다는지, 여러 색이 하나의 혼합색으로 보이는 문제, 배색면의 크기에 대한 고려등이 계획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근경에서는 배경색이던 것이 원경에서는 하늘, 숲, 강, 바다 등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前景(Figure)이 됨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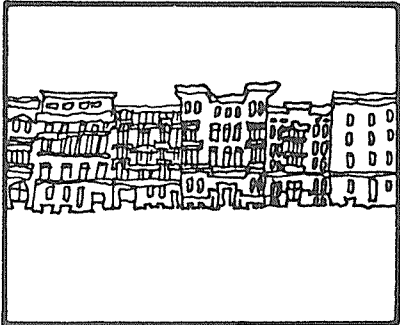


- 경관색(조경) : 가로가 하나의 매스로 의식되는 레벨
- 환경색(중경) : 가로가 개개의 단위로 의식되는 레벨
- 가로색(근경) : 가로가 건축군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의식되는 레벨
- 표지색(근접경) : 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레벨

그림 5. 視距離 레벨에 따른 도시색채 체계



지역의 스케일(경관색)
(Scale of the neighborhood)



가로의 스케일(가로색)
(Scale of the street)



단일건물의 스케일(건물색)
(Scale of a single building)



건물세부의 스케일
(Scale of a building's details)

(그림 6) 視距離에 따른 색채경관의 스케일차

그림 6은 이러한 視距離레벨에 따른 체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의 구별이다. 송신탑이나 가로등은 영구적인 것이고 건물은 물론 영구적인 것에 속하며, 가판대나 벤치는 일시적인 것이다. 간판이나 광고물도 일시적인 것이다. 영구적인 것은 환경과의 조화에 더 신중하여야 하며 자기주장을 억제하는 배색이라야 하고, 일시적인 것은 다소 자유스럽고 개성있는 색채도 무방할 것이다. 또 다른 구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물이나 광고탑은 고정된 것이고 도시내의 각종 차량, 놀이터의 롤러 코스터 등은 움직이는 것이다. 같은 색채라도 움직이면 자극이 더 강해지므로(고속이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으나 도시내의 차량은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없다) 차량의 색채는 채도를 더 떨어뜨리고 또 단순한 배색이 좋을 것이다.
(4) 색채선택의 공통성
색채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기호 등은 상당한 개인차가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장소, 어느물체, 어느 조건(기후·계절·밝기 등)을 구분하여 다수인의 선호를 조사해 보면, 어느 범위의 共感帶가 반드시 있다. 百人百色이란 말은 이 경우 적절하지 않으며, 색채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도시경관은 도시민 전체의 것이므로 부득정 다수인이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색채선택을 다수결로 한다든지 기호색의 평균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전문가가 자기의 개성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 신중히 선택하면 대개는 성공하는 법이다.

(5) 背景色으로서의 都市色
도시색채는 계슈탈트심리학에서의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의 주역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돋보이는 색채가 되어야 한다. 다채로운 原色이 도시공간의 많은 면적을 차지해 버리면 인간의 피부색이나 화장, 衣裳 등이 파묻히고 만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도시민에게 약간의 흥분과 즐거움, 활력을 주기 위한 변화가, 위락시설, 박람회장 등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건물이나 고정된 시설물보다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에 더 풍부한 색채를 사용함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국토가 좁고 평지가 적어 자연 지형의 변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인구밀도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우리나라 대도시는, 광활한 평지를 가진 나라나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보다 더 절제된 색채 사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색채가 너무 단조하고 삭막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하나, 다채로운 유니폼과 갖가지 피부색이 돋보이는 배경으로서 그러한 무채색에 가까운 단순한 벽들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유니폼과 피부색뿐 아니라 참가국기, 카드색순, 매스게임, 현수막, 아치, 풍선, 애드벌룬, 각종 포지판 등 그야말로 色彩의 祭典이라고 할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시설은, 하나의 배경이 되어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6) 主調色과 補助色

모든 디자인 원리에 지배적인 요소와 종속적인 요소가 있듯이, 배색에도 주조색이 먼저 결정되고 거기 조화되는 보조색,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액센트색이 선택되는 것이 기본적 방법이다. 도시의 색채도 이 원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이와같은 위계(hierarchy)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로 또는 도시 전체에도 있을 수 있다. 주조색의 결정은 먼저 그 대상에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그것이 놓여지는 환경색과의 조화를 따져보고 그밖에 전문적인 여러 원리들을 적용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그 시설물의 이미지 스테디, 또한 그 장소의 환경색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조색은 색의 3속성별로 주조색과 대비 또는 유사가 되는 조화색을 역시 이미지 부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극히 좁은 면적에 국한하여 액센트색이 사용될 수 있다. 액센트색은 유목성이 높고 주조색이나 보조색에 다같이 강한 대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우리나라 도시환경색채의 현상
우리나라 도시의 색채는 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색채 범위가 없다. 물론 국토가 좁아 기후·풍토나 문화가 거의 균일하므로 현저한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이를테면 강원도 산간지방과 호남의 평야지대는 지세와 지질, 식생 등의 자연조건이 다분이 다르고 또 호반도시·항구도시·공업도시·연구학원도시·고적도시등 특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리의 색채는 어디를 가나 비슷하고 거리의 분위기도 거의 다를바가 없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문화가 거의 균일해서 지역적 특색이 없다면 우리나라 전체로서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특징적 인상이 있어야 할텐데 실체는 어떤가. 무질서한 색채의 혼재가 있거나 역으로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여주거나 할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다. 이는 특히 인공환경색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은 유난히 푸른하늘, 4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색의 다채로움, 바위색과 흙색의 다양성 등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인공환경도 옛날에는 독특한 경관의 색채가 있었다. 전원에는 초가지붕과 흙벽, 또는 회색기와지붕과 흰 벽 등 차분한 가옥의 색들이 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배경 속에 잘 어울렸고, 도시는 주로 기와, 돌, 회벽 등의 무채색과 목재색이 주조를 이루며, 간간이 주황색 전돌이 외벽, 담, 굴뚝 등에 장식적으로 쓰여 액센트의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는 여러가지 건축외장재의 발달과 도료의 보급으로 색채사용이 자유스러워져 그만큼 경관의미를 증진시키기도 하였으나 한편 誤用과 남용으로 색채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의 색채경관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건축물보다도 간판이라 할 정도로 난잡한 광고물의 색채가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다 정거장 표지·휴지통·가판대 등의 가로장치물, 현수막, 각종선전판 등이 시각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들은 그 크기, 위치, 배열 상태, 글자디자인, 광택나는 저질의 재료(프라스틱 등) 등이 절제되지 않은 색채와 합쳐져서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도시경관의 품위를 매우 손상하고 있다. 또한 배색면적이 비교적 크고 양도 많은 버스·택시등의 차량색채는 세련되지 못하고 도시경관색과 조화도 이루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체 도시 색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색은 정지된 물체보다 그 운동성으로 말미암아 자극치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배색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등장한 보라색 시내버스는 그 색이 갖는 이미지, 도시환경색과의 조화, 그 색이 주는 심리반응 등 몇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배색의 예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눈에 설어서 거부반응이 있었으나 차차 눈에 익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견해야말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익어서 거부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색채감각이 저질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시의 배색도 점차 고쳐나아가 하겠다. 채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많아

자극이 강하고, 색채와 더불어 차체위의 표시등, 번호, 회사명 등의 글자 디자인이 그렇게 수준이 낮을 수가 없다. 이것은 디자인 不在現狀이라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근래 자주 지적되어 온 농어촌의 주택 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의 치졸한 원색사용도 우리 국토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다.

라. 색채환경의 향상을 위한 개선책
다음 몇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각 도시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건축위원회에 색채 전문가를 보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색채심의를 강화하며, 미관심의를 받는 건축물 이외에도 주요 시설물의 색채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이 시행하는 모든 시설물의 신축, 설치, 개조, 再塗裝時에는 전문가에게 색채설계를 의뢰하거나 적어도 자문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교량, 대형탑, 차량 등 시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배색안을 일반공모에 붙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화, TV, 홍보책자 등을 통한 색채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 외국의 우수한 도시색채의 예와 우리나라 도시색채의 현상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밝혀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든지 색채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어느 표본지구의 現狀과 개선된 후의 상황을 제시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하는 흥미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널리 국민에게 색채환경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네째, 간판 등 광고물은 그 크기, 위치, 수량과 더불어 색채를 제한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색채나 디자인면에서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도시마다 또는 어떤 행정단위마다 조례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규정이 미비한 탓인지 집행이 미흡한 탓인지 눈에 띄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섯째, 표준색표의 제정과 보급이 시급하다. 색채의 선정과 전달은 말이나 부호로는 정확을 기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의 색채로 칠해진 색표가 없이는 모든 이론이 공론에 불과하다. 연구, 디자인, 시공관리, 통제 어느면에서나 표준색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내의 각종 버스들의 도색을 보면, 같은 종류의 시내버스 또는 좌석버스의 색이 비슷하기는 하나 똑같지가 않다. 엄밀한 의미의 동일색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정확한 色票로 색이 지정되거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색채는 형태에 종속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형태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다. 좋은 디자인을 선택할 줄 알고, 機能性과 함께 造形美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그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색채를 포함한 환경의 질은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전반적 문화수준의 반영이므로 소수의 전문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또는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단시일에 색채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래 일기 시작한 색채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 붐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으로써 다음 세대에 수준높은 문화유산을 물려 줄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다. (끝)

會員動靜



변경

□ 서울지부

- ▲조영민 / 건축사사무소 다운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85-1 / 547-9178
- ▲김두호 · 박선홍 · 이장백 / 기전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68-18/553-8248
- ▲백진석 / 건축사사무소 산림건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72-32/540-4250
- ▲서양원/청수건축사사무소/서울시 중구 신당동101-7/252-1150
- ▲방승대/건축사사무소 간/서울시 강남구 서초동245-15/567-5973
- ▲김영래 / 송림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목동731-1/697-3111
- ▲김인하 / 정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395-166/333-6181
- ▲홍순명 / 홍명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499-50/973-4806
- ▲강신관 · 김현식 / 건축사사무소 예건사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368/313-3511
- ▲구정광 · 조정삼/건축사사무소 요셉 건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54-4/545-5045
- ▲김인배 / 건축사사무소 엘림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54-4 / 545-1703
- ▲김성래 · 안준수 · 임승무 / (주)예종합 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 566-6007

- ▲허진 / 진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97-1 / 385-9528
- ▲김정호 / 정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1390 / 236-3797
- ▲권영선 / 은광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1구획1 / 866-7601
- ▲김학경 / (주)석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795-8 / 591-4623
- ▲김대로 / 김대로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1동140-3 / 718-8289
- ▲김인환 / 건축사사무소 명정건축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314-36 / 488-7139
- ▲임급주 · 송정현 · 엄기철 / 경일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1669/532-9051, 7921, 7922
- ▲구제창 / 기림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414-1 / 322-3930
- ▲김창용 / 건축사사무소 동서환경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586-5/540-6196
- ▲강신관 · 김현식 · 박규영 / 종합건축사 사무소 예건사 오성
- ▲김진규 / 삼창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103-6 / 253-2324
- ▲박서홍 / (주)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1-1038 / 364-4441
- ▲방수일 · 하학수 / 반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936-8 / 584-6634

- ▲이흥수 · 정원영 /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일정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817-3 / 543-6326, 542-8168
- ▲허경 / 유정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97-18 / 922-1363
- ▲김민철 · 한영제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4-4 / 549-1104, 549-1176
- ▲김일영 / 정·이화·동신종합건축사 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252-16 / 444-2335
- ▲우남용 · 김정문 · 이원형 · 김서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637-5 / 586-6993, 587-4320
- ▲김연배 / 건축사사무소 가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32 / 542-7181
- ▲김종택 / 복음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1060-11 / 583-9283
- ▲석정훈 / 건축사사무소 태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1000 / 552-4245
- ▲이근주 / 삼명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도봉구 수유3동174-14 / 907-7300
- ▲박창배 /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80-1 / 545-9964
- ▲박찬정 · 김영국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90-7 / 549-0996
- ▲오양근 / 오양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17-2 / 541-1290